

주식시장 리뷰와 미 증시 전망

2021.6.22

파월 연준의장 발언 주목

박광남 kwangnam.park@miraearasset.com

한국 증시 장중 리뷰

- 한국 증시는 미 증시의 강한 반등에 투자심리 완화 및 동조화 현상 보이며 상승
- 미국 증시와 유사하게 철강금속, 운수장비, 석유화학 등 경기민감주 중심으로 강세
- 코스닥은 경기민감주 중심의 매수세와 2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세로 인한 수급적 부담 속 상대적으로 부진

아시아 시장 장중 리뷰

- 아시아 시장은 미 증시 강세 영향과 전일 하락에 따른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반등. 전일 큰 폭으로 하락했던 일본 증시는 3% 가까이 상승하며 전일 하락을 대부분 만회.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낮은 치명률과 기존 백신이 감염예방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 및 엔화 약세 등이 증시 반등에 긍정적으로 작용
- 중국 증시도 아시아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에 동조하며 강세. 특히 헬스케어 섹터가 강한 모습. 국가의료보험국 등 8개 부서에서 고부가가치 의료소모품 조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. 중국의 의약품 대량구매 정책처럼 대량구매를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려는 정책으로 추정

미 증시 전망: 파월 의장 발언 주목

- 6월 FOMC에서 확인된 연준의 매파적 변화와 일부 연방은행 총재들의 테이퍼링, 금리 인상 발언 등에 주식 및 채권 시장의 변동성 확대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.
-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3월 1.74%를 고점으로 횡보하다 FOMC 회의를 앞두고 1.4%대까지 하락 했었음. FOMC 회의 직후 10년물 국채 금리는 8bp가량 급등하며 1.5%를 강하게 돌파. 하지만 빠른 금리인상이 중장기 경제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1.35%까지 하락하는 등 변동성 확대 국면이 나타남. 다만, 급격한 변화에 대한 되돌림 현상으로 현재는 1.47% 수준까지 반등. 반면 2년물 국채금리는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에 급등하여 현재 0.25%까지 상승
- 10년물 BEI도 지난 5월 2.56%를 고점으로 현재는 2.28%까지 하락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감소되고 있음. 달러인덱스는 한달 가량 90선을 유지하며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6월 FOMC 회의 직후 단숨에 92수준까지 급등함
- 즉, 이 같은 경제지표들의 움직임은 FOMC회의 이후 불거진 정책정상화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. 게다가 일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까지 더해지며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지속되는 상황.
- 이에 오늘(현지시간 2시) 예정된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중요할 것. 파월 연준의장은 코로나와 연준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하원 청문회에서 발언할 예정. 미리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은 일시적이며 장기적으로 목표치 2%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, 테이퍼링 관련해서도 공식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음.
- 지난밤 미국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며 시장 불안심리가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긴축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 상황에서 파월 연준의장은 이를 완화시키는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